출가, 인생 리셋이자 리스타트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새해가 되었어도 연일 뉴스에 청년실업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시대가 되었어도 정작 그 시대를 풍미하며 지내야 할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나라의 소식인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에는 여행지의 소식이나 명품을 자랑하는 등 화려한 모습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터넷의 화려함과 현실의 불안감이 겹쳐지며 청년들은 더욱 혼란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동국대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해 만날 일이 많다. 기성세대가 소위 'MZ세대'라고 구별지어 부르는 그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편견은 사그라든다. 오히려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해 경험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고, 어른들의 시선으로 판단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에 지쳐 도리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사회가 표현하는 MZ식 모습을 보이게도 된다. 이러한 청년들의 악순환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나 잘못이 아니다. 기회조차 없으니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종종 학생들이 출가자의 삶에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한다. '근데 왜 출가하셨어요? 힘들지 않나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등등. 이러한 질문을 필자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지금 그들의 삶에

기회 박탈된 청년들, 변화는 남의 일
스스로 변화 절실하다면 출가 해보길
주인공이 되는 출가는 변화로의 여정

도피처와 변화의 의지처조차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묻는 건 아닐까? 그때 꼭 해주는 대답이 '출가는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라는 표현이다. 그럼 더욱 궁금함을 갖고 이야기를 경청한다. 대부분의 삶은 주변의 여러 환경과 조건에 의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학교가 정해지고, 직장이 정해지고, 직업을 갖고, 일상적 삶을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그 속에 자신의 의지는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출가는 다르다.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출가의 첫 걸음을 떼면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이 '리셋'된다. 살면서 지난 흔적(업)을 잊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잘못된 삶을 지운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만들어진 삶을 리셋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과 노력으로 다시금 만들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리스타트'가 이뤄진다. 지난 흔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이 갈망하던 그것에 도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출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자신 이외의 다른 이들만이 잘 살아가는 듯한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출가에 의해 현실이 된다. 현실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現實)',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가이다. 즉, 출가하여 현실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업)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출가의 삶이다. 그렇기에 출가는 자신이 스스로 삶을 리셋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의 리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박물관, 장애인의 손을 잡다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남인도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가 전시 중이다. 장애인 10여 명과 관람 계획이 있어 전시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문의전화를 했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대략적인 설명을 해준 후, 전시담당자에게 연결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내용을 친절히 안내해줬다. 그 친절함은 요새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박물관의 변화 노력에 첫 문을 들어선 것 같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불교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 박물관 관람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들도 직접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박물관의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시각장애인도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감각 체험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사유의 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오감'이 그 하나이다.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와 복제품 등을 전시해 손으로 만져보거나 재료의 냄새를 맡아 체험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다.

날로 다양해지는 장애인들의 문화향유의 욕구에 부응하는 변화가 반가워 올해 국립중앙박물

장애인 10명과 남인도불교 특별전 관람
國博, 장애인 전시 서비스 친절히 안내
문화취약계층 위한 서비스 강화 '환영'

관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 자료를 찾아봤다.

금속공예전시실에 전시 중인 범종을 비롯해 범음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열리는 등 다감각 전시를 확대한다고 한다. 오는 9월부터 문을 열 금속공예 다감각 전시에는 국보 천흥사 동종을 비롯해 여러 범종과 쇠북 등 범음구의 재질과 구조를 소리, 촉감 등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 벌써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박물관 로비인 으뜸홀도 장애인 지원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형 복합공간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휴게공간, 수어 음성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인식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친절한 안내에 장애유형에 맞는 정확한 응대가 필요하다.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장애인이 전시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지 등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쉬운 언어의 안내가 필요하듯 각 장애유형에 맞는 안내가 필수적이다.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의 경우도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전시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오디오가이드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다든가, 문맹률이 높은 청각장애인에게 작품마다 설명이 잘 돼 있으니 그냥 관람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점자안내 리플렛 배치, 전시기간 중에 주 1회 혹은 2주에 1회라도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의 정규해설의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社 說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 1주년에 부쳐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전 6시 상월결사 인도순례 참여 대중 30여 명은 순례 입재 1주년을 기념하는 걷기명상 정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1년 전 그날처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께 정진을 다짐하는 고불문을 올리고 정진했다.

1년 전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슬로건으로 부처님 8대 성지와 1167km를 43일 동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2019년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이후 이어진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의 종결어미이자 3년 동안 진행된 순례의 '화룡점정'이기도 했다.

43일의 순례 뒤 故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과 '대학생 전법'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금 등 인프라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자승 대종사는 소신공양으로 열반에 들었지만, 그 유지와 원력은 남았다.

"1년 전에는 목조불상을 안고 정진했다면 이제는 마음 속 부처님과 열반하신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안고 정진해야 한다"는 총도감 호산 스님의 말처럼 3월 23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되짚고 점검하자. 전법은 곧 한국불교의 미래다. 이를 다시 상기하자.

디테일한 군불자 관리 이뤄지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체계적 군불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계 장병 DB구축을 통해 군포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 전법 활성화를 위해 군종병 관리도 적극 수행한다는 것이다.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조계종 포교원-군종교구-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TF팀을 구성하고 수계 장병 DB 구축에 나선 것이다.

기실, 신병교육대에서 수계를 받고 예하부대에서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막상 전역하고 난 뒤에는 이 같은 신행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군포교의 문제점이었다. 소위 전법포교의 애프터서비스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수계 장병DB가 구축되면 전역 후 수계 장병이 대학교 불교동아리나 지역 사찰로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수계 장병 DB는 군 복무 후 대학과 사회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맺은 불연(佛緣)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활동을 보조하는 병사인 군종병을 집중 케어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신심이 일반병보다 높은 군종병들이 출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군종병 120명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자신의 주특기 보직 이외에도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비인가 군종병들에 대한 케어도 이뤄지길 바란다. 디테일한 군불자 관리가 결국 군불교 진흥을 이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